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청산 교수입니다.

첫 번째 미래학 강좌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여행에 이어

이번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강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은퇴 시점이 다가올 쯤이면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귀담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죠.
"내버려 둬. 나, 이대로 살다 죽게"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 사회는

살아도, 살아도 내 마음대로 죽기
어려운 시대로 진입한다 하는군요.

살아온 날 만큼의 시간을 앞으로 더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미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신지요?

그래서 이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강좌는 정년을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미래학적 지혜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강좌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첫 번째 강좌를 모두 들으신 후

이 강좌를 다시 수강하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인생 이모작을 위한
미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산업혁명과 의식혁명'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산업혁명은 익숙하지만 의식혁명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기술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의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이나
귀 등과 같은 오감을 통해

접하게 되는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동양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해보면

우리 몸을 지칭할 때 영혼백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곤 합니다.

이때 정신계와 관련된 부분을
영혼이라고 하고요.

물질계와 관련된 부분을
혼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혼은 정신계에도
물질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백에서 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의식이란
인간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신경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영혼백에서 혼의 위치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어널티니스(Alertness)라는

각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깨어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의 개념을 토대로

의식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상상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상현실로 표현해 주는

일종의 컴퓨터 기술 이것을 우리는
의식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기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컨시어스 테크놀로지
(conscious technolog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와닿게 표현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단어를 찾아보니까
미래에 펼쳐질 의식기술과

좀 더 관련성이 높은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인공두뇌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이버네틱(Cybernetic)과

'환각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이키델릭(Psychedelic)의
합성어로서

사이버델릭스(Cyberdelic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미래의 사회를 표현해 주는
의식기술이라는 단어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의식과 의식기술의
개념에 이어서

의식공존과 시대공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공존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갔다.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가끔 한 번쯤은 노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이라는 말은 보통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그 노인에도 여러 가지 또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만 많은
어른들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하고요.

의식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은 '어른'

그리고 의식이 너무나 높아서
신의 경지에 도달은

이런 어떠한 분들은
'어르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고
동일한 나이를 먹고 있지만

그분의 의식 수준이 보통인가,
높은가, 매우 높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미래학자들과 함께 얘기할 때

'의식 공존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대 공존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해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후진국의 상황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
후진국이 바라볼 때 이것은

미래의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지구상에는 동시대에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나라들은
어떤 분야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까지 미국은 주로 영토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진한 정책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면

랜드 그랜트(Land Grant)라는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토도 언젠가
한계에 도달했겠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바로 땅에서 바다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용어는

씨 그랜트(Sea Grant)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죠.

그랬는데 20세기 말쯤 되니까

이 해양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21세기가 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스페이스 그랜트(Space Grant)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주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200여 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여전히 아직도
땅에 집착하는 나라가 있다면

상당하게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중진성

그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향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면
이야말로 지구를 이끌어가는

인류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식 공존의
형태가 나타나고요.

국가 간에도 시대 공존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을 토대로

산업혁명 시대와 의식혁명 시대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래를 표현할 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

또는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그렇게 썩

미래를 표현한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단어를
추천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보다도

'제1차 의식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이 구분 시점을
20세기 이전과 20세기 이후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20세기 이전으로 설정하고

21세기 이후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의식혁명의 시대라고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혁명의 대상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기계와 공장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계와 공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혁신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지고
늘 새로운 공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새로운 기계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육 대상은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미래에 펼쳐질
의식혁명의 시대에는 어떨까요?

시대적 특성은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닌
의식혁명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산업혁명 시대 때는 그 혁명의
대상이 기계와 공장이었다면

의식혁명의 시대에는
바로 혁명의 대상이

인간의 정신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 때에는
기계나 공장에

혁명의 대상에 맞춰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데 교육이 중점을 두었다면

바로 21세기 이후
의식혁명의 시대에는

개개인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다시 말하면, 성형하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러하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 또한 청소년에서

성인들로 전환되는 그런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교육의 인간상도 한번

설정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세기 이전에 산업시대 때는 주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개미형 인간상을 추구했다면

어쩌면 21세기 의식혁명의 시대에는
개미의 인간상은 기본으로 하되

좀 더 적극적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베짱이와 같은 인간상이 어쩌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과
의식혁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기술의
패러다임과 특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